

계시록 9:1

무저갱이 언급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9:1)

무저갱이란 문자적으로 말하면 갯도, 즉 땅속으로 뚫은 길을 말한다. 지구 표면 어딘가에 갯도가 있고 이곳으로 들어가면 음부가 있는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게 되는데, 음부는 성경에서 종종 '지옥'으로도 표현되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지옥은 땅의 중심부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마12:38-40). 또 사도 바울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엡4:8-10)고 했다.

구약 시대에는 죽으면 음부로 갔다. 구약성경에서 음부를 ‘무덤, 지옥’으로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곳은 죽은 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으로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에 대해 언급하셨다(눅16:19-31).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고 있는 부자의 때문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았다. 그 거지는 죽어 천사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음부에 들어갔다. 부자는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편히 있는 거지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는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죽어서 무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신이 음부에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 나사로 역시 의식이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있었다.

음부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이다(눅23:4). 그들은 음부에 내려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려고 큰 무리가 모였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무리가 묻자,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행2:14-36)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어 음부에 내려가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는 것이다(벧전3:19). 바울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고 했다(엡4:8). 그리스도께서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충성된 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으므로 그 자리가 비어 있다.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11:39-40). 세상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죄를 덮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샤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신다고 했다(사61:1).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옥 문을 열어 주신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사망이 가두지 못할 분’이라고 말한다(롬6:9). 그분은 사망이라는 감옥의 문빛장을 부숴뜨리셨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

무저갱은 마귀나 악령을 감금하는 장소이다. 거라사인의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께 세상에 계속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저희더러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눅8:26 -31).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천 년 왕국 통치 기간인 천 년 동안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계17:8). 전에 한 번 이 세상에 있었던 짐승이 갇혀 있던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 사단은 큰 쇠사슬에 묶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무저갱에 던져진다.(계20:1-3)

계시록 9:2-4

다섯 번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요한은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된다. ‘별’은 천사를 의미하므로 땅에 떨어진 별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9:2)

그 구멍이란 연기를 내뿜어 해를 가리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화산을 말하는 것 같다.

황충이 땅 위에 나온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9:3-4)

다시 한 번 144,000명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들은 앞에서 땅에 고통을 가져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인을 받았었다(7:3). 그 144,000명은 땅에 놓여진 황충의 모양을 한 사신이 가져올 고통을 면하게 된다.

해리슨 포먼(Harrison Forman)이 쓴 「금지된 티벳을 지나서」(Through Forbidden Tibet)라는 흥미로운 책이 있다. 그 책에 “나는 지옥의 왕을 보았다”라는 장이 있다. 저자는 티벳에서 행해지는 종교 연례 행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티벳에서는 매년 그 나라의 종교인들이 모여서 기근의 신, 홍수의 신 등 여러 종류의 신들을 불러낸다. 제사하는 자들은, 이 신들이 다음해에 자기들의 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영적인 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귀신이 도망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홍수의 신이 도망을 치면 그 땅에는 내년에 홍수가 난다. 일주일 동안 이러한 의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지옥의 왕을 불러낸다.

포먼은 자기가 최면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 최면에 걸리지 않도록 애썼다고 기록한다. 그가 본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육체로 나타난 귀신들을 보고 그 귀신들과 그것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쓴 내용을 보면 계시록에 있는 귀신들과 매우 유사하다.

땅에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이 무저갱을 열자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악령들이 땅 위로 나온다. 그들의 권세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데, 곧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이다.

144,000명의 사람들은 이로부터 보호받는다. 이것은 황충이 지능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황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4,000명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

계시록 9:5-6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9:5-6)

성경에는 죽음이 인격화되어 있다. 바울은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다. 문학 작품에서도 “죽음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식으로 죽음을 인격화하여 표현한다. 계시록 20장에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울 것이라고 했다(14절). 사망과 음부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내어줄 것이다. 사망도 음부도 그 지배를 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다섯 달 동안에는 죽음이 없다. 죽을 때가 와도 죽을 수 없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는 한 부인이 밤에 내게 전화를 했다. “목사님, 빨리 와 주세요.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나고 묻자 그 부인은 “제 아들이 자살을 한 것 같아요. 무서워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목사님을 좋아하거든요”라고 했다. 그 부인의 아들은 알콜 문제로 나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 날 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자 그 어머니는 “야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마셔서 이 에미의 마음을 상하게 할거니?”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 더 이상 저 때문에 걱정하실 일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총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 부인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보니 그 아들은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쪽에 45구경짜리 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고, 그의 머리는 박살이 났다. 나는 두개골 조각과 머리카락들을 천장에서 간신히 떼어내어 석고판에 넣었다. 그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의 뇌를 쓰레발기로 모아서 화장실 변기에 버려야 했다. 그 이후로 나는 거의 일주일을 잠을 자지 못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경험이었다. 그 때 난 생각했다. ‘이렇게 해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죽음이란 축복일 수 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아니다.

큰 고문의 시대가 오고 있다. 마귀들이 전같이 주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줄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 않고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계시록 9:7-12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홍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9:7-11)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은 모두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여기 나오는 이 귀신들의 임금이이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9:12)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예수님의 공중 재림시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깊은 산속으로 가면 된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작은 시내를 찾아서 사냥도 하고 야생 열매를 따먹으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숨어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잡을 수 없고 나를 인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지배를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귀신으로부터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땅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가지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7).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계시록 9:13-15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9:13)

장막 안에는 네 뿔이 있는 제단이 있었다. 이것은 하늘의 제단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이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9:14)

유브라데 강은 세상의 거짓된 종교제도가 나온 고대 바벨론 왕국에 흐르던 강이다. 대부분의 거짓된 종교 의식들은 바벨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또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있던 강 가운데 하나였다. 인간의 첫 거주지는 유브라데 골짜기였을 것이다. 이 강에 횡포하고 무서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이다.

자기들의 원래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있다(유 6절; 벰후2:4). 그 천사들은 심판날을 기다리며 흑암의 결박에 매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홍포한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심판날까지 결박하신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 주심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헤립 왕이 이끄는 앗수르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자를 앗수르 진중에 보내어 하룻밤에 앗수르 군사 185,000명을 치셨다.(사37:36)

계시록 9장에는 매우 포악한 네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로부터 이 세상을 보호해 오셨다. 그러나 이제 사슬에 묶여 있던 천사들이 풀려날 것이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9:15)

이 천사들은 한번에 지구 인구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한다. 네 번째 인으로 세계 인구 50억 가운데 사분의 일이 죽었다면 지구상에는 38억의 인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여기에서 또 삼분의 일(12억)이 죽게 될 것이고, 또 해일, 지진, 운석 같은 지각 변동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세계 인구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둘 가운데 한 사람만 살아 남게 되는데, 구약성경에는 셋 가운데 하나만 살아 남으리라고 했다.(속13:9)

계시록 9:16-21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홍갈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9:16-19)

2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것이 최근까지도 얼마나 불가능한 말이었는지 알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나라 군대가, 또는 어떤 연합군이 2억이 될 수 있겠는가?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 된 것이 1860년의 일이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모은다고 해도 2억 군대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2억의 군대를 소집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데 흥미로운 숫자 아닌가? 1억 5천만이나 1억 7천 5백만, 또는 2억 1백만이라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왜 2억이라고 했겠는가? 타임(Time)지도 중국이 2억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단언한 기사를 실었었다(Time, May 21, 1965). 요한은 이런 대규모 군대를 보고 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9:20)

나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문제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의식적으로 마귀를 섬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단을 섬기고 있다. 실제로 우상 숭배는 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회개치 않는다.

시편에서 다윗이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다윗은 우상을 가리켜 사람들이 나무나 은으로 새긴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 또 발이 있어도 걸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 우상과 똑같이 되고 만다.(시135:15-18)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는다. 이것이 삶의 기본 철학이다. 당신의 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무엇을 섬기든 그것을 닮게 될 것이다. 우둔한 우상을 섬기면 우둔하게 된다. 당신의 신이 거짓되다면당신도 거짓될 것이다. 무감각하고 무정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도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이 된다. 당신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와 축복은 섬기는 신이 누구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하나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3:2).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3:18)

당신이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상과 철학과 야망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9:21)

‘복술’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파르마케이아’(pharmakeia)인데, 이 단어로부터 ‘pharmacy(조제술, 약국)’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것은 환각 상태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약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복술을 회개하지 않았고 음행과 도적질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 도처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할 것 같지만 실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퍽해져서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그를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고 했다(롬2:4).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지, 그에 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회개하게 된다. “오 하나님, 어찌 그리 좋은지요. 저는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